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정치적 참여를 위한

성경적 원칙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우리의 사명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하고, 가족, 지역 사회, 공공의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 자신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 우리의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희망이 있습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의 진리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성경적 원칙:

세계관, 쟁점 및 투표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 2022 가족 연구 위원회

모든 권리 보유.

미국에서 인쇄됨

정치적 참여를 위한 성경적 원칙:

세계관, 쟁점 및 투표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참여해야 할 도덕적 또는 성경적 의무가 있습니까?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투표할 의무가 있으며, 투표할 의무가 있다면 투표할 때 어떤 원칙을 알려야 합니까?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선거 시즌에 어떻게 교인들을 잘 목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정치 및 문화 참여를 위한 몇 가지 모델과 제안이 제안되었습니다.¹ 이 제안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세상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문제에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도록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합니다.

1947년 신학자 칼 헨리는 전후 동시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급한 세계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역사적 기독교가 문화적 영향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². 헨리 시대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광장에서 철수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거나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사회적 관련성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하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헨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 철수는, 기독교가 다른 이념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헨리는 물러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근본을 정부와 정치, 즉 사람들의 공적 삶을 근본적으로 질서화하는 영역 등 복음이 말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하여 광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세기 중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헨리의 뒤를 이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의 부상과 성 혁명으로 인한 기독교 성윤리 거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경의 원칙을 꾸준히 광장의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공적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선거 주기마다 모든 소통 플랫폼에서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후보자 광고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 시스템의 독성적인 어조와 극도로 당파적인 성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신앙이 정치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혼동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³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묻습니다(잠언 21:1). 왜 그렇게 분열적인 일에 연루되어 복음의 증거를 훼손하는 위험을 감수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나 당파 정치에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위해 회중을 교육하고 동원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올바릅니까? 둘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대중과 정치 영역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자는 정치를 하나님에 의도하지 않은 수준의 중요성으로 끌어올려 교회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 과정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성경은 정부와 정치 권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접근 방식,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정치적 도전에 성경적 원리를 충실히 적용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열된 정치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정치 참여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함의를 정치 과정과 연결함으로써 이 일을 할 것입니다.



- 먼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정의하고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적 세계관이 정치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이나 원칙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둘째,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 투표, 미국의 양당 제도, 정당 강령, 그리고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는 공공 정책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목회자가 민감한 도덕적 질문을 탐색하고 교인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라는 용어는 속임수, 갈등, 분열의 대명사이며, TV에서 충돌하는 후보자나 상대를 비난하는 불쾌한 선거 광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정치인, 캠페인 또는 국가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관점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치는 인간 집단이 자신들의 일을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폴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시민이 통치하는 정치 단체)를 가리킵니다. 의미심장하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정치는 “다양한 지역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분배하기 위한 투쟁”⁴이었습니니다. 이는 국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홈스쿨 협동조합이 회의를 개최할 장소를 결정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동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결정하거나, 휴가 기간 동안 서로의 집을 돌봐주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공동체,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치가 대립하는 극소수의 정치인들만 다루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여 정치 전반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다면, 사회와 우리 이웃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더럽혀진 것이며, 정치 활동은

복음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하다는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시민 참여에 대해 “정치가 아닌 전도”라고 부르는 접근 방식에 부합합니다.⁵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제자 삼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마태복음 28:16-20). 다시 말해, 정치 참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반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일을 질서화하는 방법과 기독교 세계관이 시민의 책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현실을 통합하는 정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 의견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축복과 기회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청지기 정신의 문제이므로, 민주 공화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성경은 통치 당국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가르칩니다(롬. 13:1-7).

성경은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7절에서 바울은 통치 당국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묘사하며 이들이 민사 정의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시민 영역에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정부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9 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살인자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 권한을 부여하십니다(창 9:5-6).⁶ 이 구절은 공동체가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영적 필요와 현세적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총체적인 사역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신실한 정치 참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다니엘은 외국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했습니다. 요셉의 경우, 엄청난 기근이 닥쳤을 때(창 45:9-12)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정부에서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 그의 대가족(미래의 이스라엘 국가가 될)을 보호하고 부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여왕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가 승인한 대량 학살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냈습니다(에스더 8장).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유배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라고 하셨습니다. 번영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돌보는 전인적인 사역에 참여하셨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갈 6:10). 또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권고는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수박에 없습니다. 정부 직책에 있는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성경의 권고는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사람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신자의 ‘선행’에는 기독교 전도, 선교, 복음 전파의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선동 혐의로 기소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카이사르에게 호소했습니다(행 25:10). 분명히, 사도는 당시의 정치 및 법률 시스템 안에서 거짓 고발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편안하게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치는 우리가 공동의 삶을 질서화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리스도인의 피할 수 없는 중심 관심 분야입니다. 정부와 법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유배자”(벧전 2:11)이지만, “하나님의 도시”이자 “사람의 도시”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도시의 선량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웃의 번영에 기여하는 법, 정책, 관행의 발전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할 성경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참여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치에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

성경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이 질문은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 정치의 분열적이고, 거친 성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를 영속화하는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 중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는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너무 정치적인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정치적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을 질책했습니다.⁷ 그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정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를 영속화하는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입니다. 역사적 사례로는 노예제 폐지를 거부한 19세기 교회와 짐 크로우 법에 침묵한 20세기 중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사실상 악한 제도와 법률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교회(CESA)의 아파르트헤이트(1948-1994년) 대응입니다. 교회는 “비정치적”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로 인해, CESA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오도될 수 있었습니다.⁸ 교회는 비정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심각한 불의를

용인하는 체제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 교회가 나치에게 항복한 것도 비슷한 실패의 사례입니다. 히틀러의 명백한 반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목회자들은 신실한 기독교 제자 훈련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에 교회를 목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근 선거 기간 동안, 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에게 투표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교회 로비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주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⁹. 이 관점은 정치가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치 과정에는 잠재적인 함정이 따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와 선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교인들을 이끌어야 하며, 대부분의 정치적 문제는 교인들의 개인적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조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이디어를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고 실질적인 행동 단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구체적인 문제, 아이디어의 결과, 양당 체제의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¹⁰ 교회의 사명을 정당의 강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는 따뜻한 담론을 촉구하고 몇 가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투표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투표할 때 어떤 성경적 원칙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도 투표해야 합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도 투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정부의 권위와 미국의 독특한 정부 형태, 그리고 신학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기독교 지도자는 최근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주최하고 신도들에게 유권자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¹¹ 이 지도자는 “투표는 좋은 일”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관으로서 후보자를 위해 기도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증거를 지키려는 이 목회자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온전히 실현된 기독교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복음이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공적 영역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얻고(즉, 유권자 등록)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청지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투표함의 청지기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들.**

미국과 같은 입헌 공화국에서 권력의 중심은 시민이며,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주의 논문 22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의 동의는

“모든 합법적 권위의 순수한 원천”입니다.¹² 미국에서는 이 원칙이 정부의 기본이며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투표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것의 청지기인 것처럼 그것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기독교 시민에게, 미국의 정부 형태가 주는 의미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정부의 목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고려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정부는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에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칼을 휘두를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최근 한 신학자는 “칼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이 인류에게 허락한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¹³

이러한 고려 사항에서 투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투표하는 것은 자신의 통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통치할 공무원들에게 ‘칼을 든’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투표는 청지기 정신의 문제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행위가 칼의 행사를 위임하는 행위라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의 피할 수 없는 역할과 정부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현실적 영향을 고려할 때, 투표의 책임을 경시하는 것은 기독교 제자도의 실패에 해당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투표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정치 분야를 지나치게 우선시한다고 반발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치적 참여는 이웃을 사랑하고 문화



속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¹⁴. 이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중요성과 국민의 삶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최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형성하는 영역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웃을 잘 돌볼 수 있습니까?

더구나,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전 세계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 즉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보는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기득권을 갖지 않고 어떻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의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투표를 통해 해외에서 미국을 대표할 인물을 결정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할 가치를 결정합니다. 미국 대사가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옹호 분야인 국제 종교 자유의 현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계획”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낙태가 미국 납세자들에 의해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에 관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신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정치적 쟁점, 후보자, 정당 공약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고려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투표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도덕적 문제, 후보자, 정당 공약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교육의 대부분은 교회의 규칙적인 리듬과 예배 (말씀 설교, 공동 기도, 찬송가 등)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치적 제자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의 경우, 유권자 안내서 및 기타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정치 참여에 관한 워크숍이나 성경 공부를 주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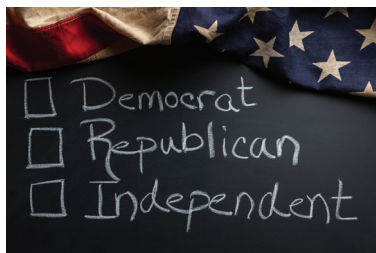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제안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공동체의 일을 가장 잘 조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의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삶을 질서 있게 꾸려나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투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사려 깊은 토론과 정중하게 이견을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뒤집기 위해 싸우는 정책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 찬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타락의 부식된 영향을 되돌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투표를 하기로 한 결정은 바로 그러한 시도를 위한 것입니다.

양당제의 현실

정치, 특히 선거 정치에 가장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우리는 현재 양당 체제의 맥락에서 투표의 현실과 씨름해야 합니다.

양당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당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당은 일반적으로 전폭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당원들이 당 강령의 모든 입장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비성경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사회에 대해 예언자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이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쟁점 지향적이어야 하며, 정당이나 정당의 강령이 지시하는 바에 관계없이 긴급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의 강령 전체와 그 안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당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가 가진 장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단체와 지도자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메시지와 정당의 메시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정치적 입장을 평가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운동과 결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실을 핑계 삼아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에 대해 양대 정당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 과정에서 탈퇴하거나 정당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요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파악하는 쟁점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언자적 거리를 허용하지만 두 주요 정당(또는 그 강령)이 모든 쟁점에서 도덕적으로 동등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소속되지 않은 마지막 대통령은 지금은 해체된 휘그당 소속으로 제13대 미국 대통령(1850~1853년)을 역임한 밀라드 필모어(Millard Fillmore)였습니다.¹⁵ 좋은 나쁜든, 미국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이 제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양당의 구성원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투표 방법을 결정할 때 어떤 성경적 원칙과 정치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 선거 시기에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투표와 정치 참여에 대한 책임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당면한 쟁점을 인식하고 각 정당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몇 가지 관련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사하고 양측의 입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낙태

성경이 말하는 것

태아의 인격에 관해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잉태와 함께 시작됩니다(출애굽기 참조). 21:22; 시 139:13-16, 22:10, 51:5-6, 욥 3:3, 렘. 1:4-5; 이사야. 49:1; 눅 1:39-45; 갈 1:15). 따라서, 성경 어디에도 "낙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출 20:13). 낙태는 성경에서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⁶

양측의 입장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당 입장은 낙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 당원들은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물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¹⁷ 현재 당은 낙태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992년 민주당의 정책 성명서에는 “우리 나라의 목표는 낙태를 덜 필요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¹⁸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2020년 성명서에는 “우리는 여성의 생식 건강과 권리에 장벽을 만드는 연방 및 주법을 반대하고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며, 하이드 수정안을 폐지하고 생식 자유권을 보호하고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¹⁹ 1976년 처음 통과된 하이드 수정안은 낙태 비용으로 연방 납세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 강령에는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주요 정당의 명시적인 호소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에, 최종 후보였던 조 바이든을 포함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든 민주당 후보가 하이드 수정안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²⁰

반면, 2016년 공화당 강령(2020년에 다시 채택됨)은 의회에 성-선택 낙태, 장애에 따른 낙태, 신체 절단 낙태 절차를 포함한 낙태 제한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령은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 낙태 생존자 보호법,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 등 친생명 법안을 지지하고 “무고한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강령은 낙태를 조장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가 낙태를 수행하는 계획된 부모 역할(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²¹

낙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미국에 이어 2022년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에서 뒤집었습니다. 판결 당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이 땅의 넓은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²²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생명이 이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오늘의 판결을 축하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 온 프로라이프 운동을 축하합니다... 공화 당원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옹호할 것입니다."²³

미국 의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낙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미국 하원은 낙태에 대한 거의 모든 주 차원의 제한을 없애고 여성 건강 보호법(*Women's Health Protection Act*)에 투표하여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의 양심 보호가 약화되고, 낙태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 금지가 위태로워지며, 임신 말기 낙태가 법으로 제정되고, 수백 개의 주 차원의 생명 보호법이 무력화되고, 태아의 죽음을 일상적인 의료 시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²⁴ 이 법안은 하원에서 당론에 가까운 찬반 투표로 218-211로 통과되었으며,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하원 의원이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²⁵ 상원에서는, 조 맨친 상원 의원(D-W.V.)이 공화당 간부 회의 만장일치로 "반대" 표결에 참여하면서, 51-49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²⁶ 돕스 결정에 따라 하원은 2022년 7월에 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번에도, 쿠엘라 의원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²⁷

2019년과 2020년에 상원에서 낙태에 대한 주요 정당 간의 격차를 강조하는 다른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뉴욕과 버지니아 같은 주에서 출생 후 낙태(즉, 영아 살해)를 포함하도록 낙태법을 자유화함에 따라 벤 새스 상원 의원

(R-Neb.)은 2019년 1월에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²⁸ 이 법안은 낙태 실패(낙태로 인해 살아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 시 의사가 입회하여 같은 발달 단계에서 태어난 다른 아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2019년 2월 25일에 법안 처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즉,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를 거부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 3명만이 이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는 데 투표했습니다.²⁹ 공화당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표결 일정을 잡아달라고 80번이나 요청했지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조차 거부했습니다. 낙태 후 생존한 영아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원 민주당의 거부는 하원 공화당이 이 문제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증인 채택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했을 때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 중 이 주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공화당은 2019년 9월 10일에 국회의사당 지하에서 자체 청문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³⁰

2020년 2월, 미국 상원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 즉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과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을 고려했습니다. 상원 의원 과반수가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토론 종결 투표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³¹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임신 후기(20주)에 낙태 시술로부터 태아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중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에 투표한 의원은 2명뿐이었고,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에 투표한 의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펠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면 두 법안은 모두 법안이 되었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³²

결혼과 성생활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 언약으로 정의하며, 결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창 2:24, 마 19:5, 막 10:6-9, 엡. 5:22-23). 성경은 동성애 행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창 19:1-5, 레 18:22, 20:13; 롬. 1:24-28; 고전. 6:9-11; 딤후. 1:10-11).³³

양측의 입장

결혼과 관련하여, 2016년 공화당 강령(2020년 재채택)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은 자유 사회의 토대이며, 수천 년 동안 자녀 양육과 문화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맡아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³⁴

반면, 2020년 민주당 강령은 평등법, 즉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등 선천적, 타고난, 비자발적, 불변의 특성을 보호하거나 (종교의 경우)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시민권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주관적 범주인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한 당의 지지 입장을 강조합니다. 평등법은 또한 개인의 종교 자유 및 회복법(RFRA) 청구권을 박탈함으로써 현행 종교 보호를 약화시킵니다. 2021년 2월, 하원은 평등법을 224대 206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221명인 반면 공화당 의원은 3명뿐이었습니다.³⁵

2020년 민주당 강령은 또한 미국 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판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의해 금지된 '성별에 근거한' 고용 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³⁶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2016년 강령은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칭찬하면서, 민주 당원들은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습니다.³⁷

앞서 언급했듯이, 공화당 강령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모든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생물학적 성은 유동적이지 않으며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공격적인 사회적 의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모든 민주 당원들은 2015년 오버게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 세계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믿으며, 차별 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³⁸

따라서, 결혼과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두 주요 정당은 점점 더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원이 동성 결혼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결혼에 대한 당 강령의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47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³⁹

**오늘날 낙태와 결혼/성생활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이보다 더
극명하게 갈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명확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 결혼, 인간의 성을 주요 도덕적 관심사로 올바르게 인식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투표와 정당 강령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주요 정당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나중에 평가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갖는 함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의회 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의 세계관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두 가지 문제는 빈곤과 인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할 때 성경적 지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곤

성경이 말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전체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주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권면이 넘쳐납니다(잠언. 3:27-28, 22:22-23, 31:8-9; 사. 1:17, 10:1-3; 욥 7:8-10), 예수님 자신도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관심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마 11:4-6, 25:45; 눅 6:20-21, 14:14). 예수의 이복형 야고보는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종교"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썼습니다(야고보서 1:27).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종

성경이 말하는 것

인종 평등과 관련하여,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창 1:27). 또한, 복음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방언, 나라, 부족의 신자들이 “한 새사람”(엡 2:14-16)으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새 언약은 인종에 따른 구별을 폐지했습니다(갈 3:28-29, 골 3:11). 천국에서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계 7:9). 따라서, 피부색(또는 배경이나 민족)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구별을 되살리고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죄악이며 교회에서 강력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 기도, 지혜,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합니다.

덜 직설적인 당 입장 평가하기

성경은 분명히 가난과 인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이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종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두 주요 정당의 입장은 낙태, 결혼, 인간의 성에 대한 입장보다 덜 명확합니다. 어느 쪽도 더 많은 빈곤이나 인종 차별을 옹호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정당 모두 빈곤과 인종 차별을 모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종과 빈곤에 관한 어느 쪽 정책이 성경에 더 충실한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서도 적용에 있어서는 긴장이 발생합니다. 조나단 리먼은 "기독교의 핵심 원칙에서 공공 정책으로의 전환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원칙적 고려 사항을 거쳐 '복잡하고 들쭉날쭉한' 경로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⁴⁰. 인종, 출신 국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잘못된 것이라는 명백한 정책 처방도 있지만, 소수자 공동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수 집단 우대 조치, 교도소 개혁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정책에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 기도, 지혜, 그리고 이견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이 "빈곤"과 소수자 권리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빈곤층과 소수자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개념에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소수자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과 개인, 교회 및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장점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기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종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인종 차별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견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며, 성경에 비추어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이나 소수자를 돕기 위한 모든 제안을 성경적으로 지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제안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느 당의 정책 제안에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종과 빈곤과 관련된 문제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종종 상황 인식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특정 경제 시스템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제 시스템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경제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도둑질 금지 계명은 구약의 상속과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앞서 논의한 낙태, 결혼, 인간의 성 문제와는 달리 빈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법률과 관련하여,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평등권을 증진하기 위해 종종 협력해 왔습니다. 의회가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하원 공화 당원의 80%와 상원 공화 당원의 82%가 하원 민주 당원의 63%와 상원 민주 당원의 69%와 함께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공립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차별을 종식하며 유권자 등록 요건의 불평등 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⁴¹ 민권법에 대한 초당적인 작업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기여한 역사적인 입법 성과였습니다.

2018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협력하여 직업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해 재범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226명)⁴²이 134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NAACP)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는 일반 인구의 32%를 차지하지만 수감자의 56%를 차지합니다.⁴³ 따라서, 형사 사법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한,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2018년 9월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실업률이 5.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공화당 지도부 아래에서 실업률이 급락했습니다.⁴⁴ 이 기간 동안 흑인 청소년 실업률은 19.3%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⁴⁵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은 2022년 9월에 5.8%에 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상관관계가 곧 인과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가 리더십 하에서 소수계 실업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종 관계 및 빈곤 퇴치와 관련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인종 차별의 유산과 그 여파에 고유하게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우려의 영향을 받아 일련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치 과정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견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서적 성찰과 실용적인 응용

두 정당 모두 옹호하는 모든 정책 입장이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수많은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럽게 토론하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자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적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쟁점이 투표 참여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두 주요 정당이 성경에서 다루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와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에서 양측은 이제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정당의 권위보다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직 후보자가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법을 무시하고 과시하는 쟁점에 대해 입장을 고수하고 심지어 옹호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적 정직성을 위해,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낙태와 인간의 성에 대해 성경과 일치하는 정책 입장을 수용한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경과 상반되는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주요 정당은 성경에서 다루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에 대한 적용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하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을 보존하는 법과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옳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낙태에 대한 성경의 도덕적 평가와 공공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당 체제의 정치적 현실에 대입해 보면, 이러한 도덕적 계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참여를 고려할 때 도덕적 분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앤드류 위커는 낙태의 경우 "사회적 악과 범죄

행위로 인해 존재하는 사회악을 개선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성문화된 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⁴⁶ 고 지적합니다. 즉, 태아의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태아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자원, 시간을 활용하여 이 잘못된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제정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행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2015년 대법원이 시도한 것처럼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지만,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성경의 잘못된 편에 서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주제에 대해 크게 다르며, 대부분의 공화 당원은 성소수자 권리 옹호로 대표되는 성 혁명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민주 당원은 이를 수용하고 장려합니다.

따라서, 생명과 인간의 성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정당 중 하나는 성경적 도덕과 명백하게 상충되는 입장을 비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에 도덕적 혼란이 가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태내에서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명령받은 구체적인 행동은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수 집단 우대 입학 할당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민간

프로그램을 위해 반대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입장(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낙태나 성문제처럼 당파적 노선을 따라 나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빈곤 퇴치나 인종 관계에 관한 정책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지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성경과 성경적 원리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석 능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그리스도인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정당 강령을 통해 선거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치 철학으로 제안된 이러한 강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각 정당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쟁점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지(또는 두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의 강령에 따라 투표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⁷ 따라서, 정당의 강령은 해당 정당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경우, 강령이 성경적 도덕성에 기반한 정책을 권장하는 한, 강령을 기반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느 정당도 그리스도인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정당 강령을 통해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던 신학교의 총장인 알버트 몰러는 정당 강령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몰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종교적 자유, 낙태, 연방 사법부 임명, 성생활, 결혼, 해석학(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등 다양한 쟁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정당 강령의 중요성과 누구를 지지할지 선택하는데 있어 강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몰러는 “정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⁴⁸ 그는 여름 전당 대회를 앞두고 “두 정당의 정강 정책이 발표될 때쯤이면 ‘어느 쪽에 투표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두 정당이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몰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강령에 반영된 세계관적 분열을 신실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요컨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정당에 점점 더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당에 속해도 완벽하게 “집” 처럼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⁴⁹ 두 정당 모두에서 똑같이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인 것 같습니다.

결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참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쟁점, 후보자, 정당 공약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걸러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정치적 또는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정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선의의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들이며,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명료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추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양떼를 훈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정책 입장이 심오하게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을 장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청지기 정신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관리하도록 격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정치와 공공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며,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경적 원칙과 정치적 책임을 연결하도록 도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우리의 신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합니다. 즉,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후보자를 위해 기도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발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근거가 없는 곳에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해서는 안 되지만, 강력한 제자 양육을 위해 회중이 투표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문제와 양당제의 현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기독교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데이비드 클로슨(M.Div.)은 가족 연구 위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 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생명, 인간의 성, 종교적 자유 및 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비드는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로라 그로스번트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1 웨인 그루뎀, **성경에 따른 정치: 성경에 비추어 현대 정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료**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주: 존더반, 2010), 23-53. 그루뎀은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 "모든 정부는 악하고 악마적이다", "정치가 아닌 전도를 해야 한다", "전도가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 등 그리스도인과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 지배적인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중요한 영향력", 55-76쪽에서 자신이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분류는 H.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뉴욕: Harper Collins, 1951)입니다. 니버의 다섯 가지 옵션은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 위에 계신 그리스도", "역설 속의 그리스도와 문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 2 칼 헨리, **현대 근본주의의 불안한 양심**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주: 윌리엄 B. 에드먼즈 출판, 1947), 65.
- 3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광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는 진보적인 세속 엘리트들이 흔히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의 표현과 공적 생활의 모든 측면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우려는 의도가 없었던 창립자들의 의도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기독교 신학이 법이나 정치와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은 광장을 철저히 탈세속화해야 하며 세속적 세계관만 허용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를 몰아내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광장을 요구하는 세속주의자들에게 불필요한 양보입니다. 리처드 존 노이하우스가 수년 전에 주장했듯이, 종교적 신념을 공적 담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속적 가치가 비종교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실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에 기반한 세계관을

가지고 광장에 들어서며, 중요한 메타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은 2006년에 정치에 도덕적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오바마는 정책을 수립할 때 종교적 신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광장에 들어가기 전에 종교를 문 앞에 두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 에이브러햄 링컨,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도로시 데이, 마틴 루터 킹 등 미국 역사상 위대한 개혁가들 대부분은 신앙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대의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공공 정책 논쟁에 '개인적 도덕성'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법은 정의상 도덕의 성문화이며, 그 대부분은 유대-기독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인용문의 출처: 마이클 샌델, *저스티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뉴욕: 파라, 스트라우스와 지루, 2009), 246.

- 4 조나단 리먼,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 대사관으로서의 지방회* (다우너스 그로브, 일리노이주: IVP 아카데미, 2016), 83. 리먼은 주디스 스콰이어스의 말을 인용하여 '정치'를 제대로 개념화하면 국가 기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 5 그루뎀, *성경에 따른 정치: 성서에 비추어 현대 정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료*, 44.
- 6 리먼,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사관으로서의 지방회*, 186. 리먼은 창세기 9장과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제도적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두 구절의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함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의 메커니즘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부, 즉 공적으로 인정된 일련의 제도적 절차를 구성하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리먼, 186-188 페이지 참조.

- 7 티모시 켈러, “그리스도인은 양당 체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들은 그렇지 않다.” 뉴욕 타임즈, 2018년 9월 29일, 2019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nytimes.com/2018/09/29/opinion/sunday/christians-politics-belief.html>.
- 8 리먼,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 대사관으로서의 지방회*, 85.
- 9 케빈 드영, “선거 시기의 교회”, 복음 연합, 2018년 10월 3일, 2019년 5월 10일에 접속,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blogs/kevin-deyoung/church-election-time/>.
- 10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당제가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회제 정부 시스템의 복잡성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 정당이 있는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쟁점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11 오늘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이들 국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집할 수 있는 명확한 ‘기독교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12 알렉산더 해밀턴, “연방주의자 22호,” 1787년 12월 14일. 온라인에서 https://avalon.law.yale.edu/18th_century/fed22.asp.에서 이용 가능
- 13 리먼,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 대사관으로서의 지방회*, 50.

- 14 드영, "선거 시기의 교회."
- 15 프랭크 프라이델과 휴 사이드, "밀라드 필모어," 백악관, 2019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whitehouse.gov/about-the-white-house/presidents/millard-fillmore/>.
- 16 태아의 인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데이비드 클로슨의 '프로라이프 참여를 위한 성경적 원칙'을 참조. 인격, 성경, 그리고 교회 역사," 가족 연구 위원회, 제2판, 2022; 온라인: frc.org/unborn 참조.
- 17 "낙태에 관한 빌 클린턴", 온더이슈, 2019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ontheissues.org/Celeb/Bill_Clinton/Abortion.htm.
- 18 "1992년 민주당 강령", 미국 대통령직 프로젝트, 2019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1992-democratic-party-platform>.
- 19 이 문구는 "우리는 하이드 수정법 폐지를 포함하여 여성의 낙태 접근을 방해하는 연방 및 주 법률과 정책에 계속 반대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한 2016년 민주당 강령과 유사합니다. 2016 민주당 강령, 33 참조.
- 20 매기 애스터, "2020년 민주당이 낙태 설문 조사에 응답한 방법", *The New York Times*, 2019년 11월 25일, 2020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nytimes.com/2019/11/25/us/politics/democratic-candidates-abortion-survey.html>.
- 21 "2016 공화당 강령," 2016, 공화당 전당대회, https://prod-cdn-static.gop.com/media/documents/DRAFT_12_FINAL%5B1%5D-ben_1468872234.pdf?bcs-agent-scanner=a65aedb1-d2b4-8e47-9255-33500e296c32.

- 22 조 바이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백악관, 2022년 6월 24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6/24/remarks-by-president-biden-on-the-supreme-court-decision-to-overturn-roe-v-wade/>.
- 23 로나 맥다니엘, "생명을 위한 역사적 승리에 대한 RNC 성명", 공화당 전국위원회, 2022년 6월 24일, <https://gop.com/press-release/rnc-statement-on-historic-victory-for-life/>.
- 24 법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데이비드 클로슨, '비양심적'을 참조하십시오. 새 법안은 민주당이 출생 전까지 낙태에 대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족 연구 위원회, 2021년 9월 28일, <https://www.frcblog.com/2021/09/unconscionable-democrats-are-okay-killing-babies-day-birth/>.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5 미국 의회, 하원, 2021년 여성 건강 보호법, H.R. 3755, 117차 의회, 2021년 6월 8일 하원에서 도입,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755>.
- 26 미국 의회, 상원, 2022년 여성 건강 보호법, S. 4132, 117회 의회, 상원에 발의, 2022년 5월 3일,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4132>.
- 27 미국 의회, 하원, 2022년 여성 건강 보호법, H.R. 8296, 117차 의회, 2022년 7월 7일 하원에서 도입,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8296>.
- 28 미국 의회, 상원, 태아 낙태 생존자 보호법, S. 311 (2019), 116회 의회, 2019년 1월 31일 상원에서 발의,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311>. 영아 살해 문제는 2019년 뉴욕주가 낙태 싹

패시산 채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던 주 공중보건법 조항을 폐지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정된 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 임신 24주 이후에도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예외' 조항은 신체적 정의에 국한되지 않으며 낙태 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법은 매우 광범위하여 이제 뉴욕에서는 출생 순간까지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뉴욕주 법안 통과에 이어 캐시 트란(D) 하원 의원도 버지니아주에서 임신 3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앞둔 신체적 징후"를 보인 후에도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란은 "내 법안은 낙태를 허용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은 공화당 스탠다드, "캐시 트란, 위원회에서 버지니아 주 제3기 임신 중절 법안 발표", YouTube 동영상, 2019년 1월 29일, 2022년 9월 27일 접속, youtube.com/watch?v=OMFzZ5I30dg을 참조하십시오.

위의 의견들과 이에 따른 대중의 분노에 대응하여 당시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랄프 노덤(Ralph Northam) (민주당 소속)은 전 소아 신경학 전문의로서, 제안된 법안에 따라 미숙아 중절 낙태를 생존한 아기에게 대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유아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산모와 가족이 원한다면 아기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와 산모 사이에 논의가 이어집니다."와 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덤의 발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나 코르테즈, '낙태에 관한 버지니아 주지사'를 참조하십시오. '산모와 가족이 원한다면 영아를 소생시킬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2019년 5월 10일 접속, youtube.com/watch?v=SkTopSKo1xs

- 29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D-N.Y.)를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벤 새스 상원 의원(R-Neb.)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법안은 낙

태 실패에서 살아남은 영아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53대 44(찬성 60표 필요)였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없었고, 민주당 상원 의원 3명(만친, 존스, 케이시)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알렉스 스와이어, "상원 민주당, 공화당의 영아 살해 방지 법안 저지", 워싱턴 타임즈, 2019년 2월 25일, 2019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feb/25/the-latest-democrats-block-senate-gop-anti-abortion/> 참조.

30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과 관련된 하원 공화당의 전체 노력은 <https://www.republicanwhip.gov/endinfanticide/>을 참조하십시오.

31 상원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 토론 종결 투표에서 53-44로, 출생 후 생존한 낙태 생존자 보호법 토론 종결 투표에서 56-41로 찬성했습니다. 투표는 대체로 정당 노선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2명(케이시, 맨친)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에 찬성했고, 3명(케이시, 맨친, 존스)은 출생 후 생존에 찬성했습니다. 공화당원 전원이 출생 후 생존에 투표한 반면, 공화당원 2명(콜린스, 머코스키)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 보호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데이비드 클로슨, "냉정하고 잔인한: 상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다." 참조, 가족 연구 위원회, 2020년 2월 26일, 2020년 4월 27일 접속, <https://www.frcblog.com/2020/02/callous-and-cruel-senate-fails-uphold-human-dignity/>.

32 "행정 정책 성명서," 대통령 행정실 관리 예산처, 2020년 2월 25일,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omb/statements-of-administration-policy/>.

33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비드 클로슨,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적 원리", 가족 연구 위원회, 2020, 온라인: frc.org/humansexuality 참조.

- 34 "공화당 강령 2016", 공화당 전당 대회.
- 35 미국 의회, 하원, 평등법, H.R. 5, 117차 의회, 2021년 2월 18일 하원에서 소개,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 하원이 평등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9년 5월에 236대 173(민주당 228명, 공화당 8명)의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국회, 하원, 평등법, HR 5, 제116회 1차 회의 참조, 2019년 3월 13일 하원에서 소개,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5>.
- 36 "2020 민주당 강령," 민주당 강령 위원회, 2020,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0-democratic-party-platform>.
- 37 "2016 민주당 강령," 민주당 강령 위원회, 2016,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16-democratic-party-platform>.
- 38 "공화당 강령 2016", 공화당 전당 대회, 10, 31.
- 39 미국 의회, 하원, 결혼 존중법, H.R. 8404, 117차 의회, 2022년 7월 18일 하원에서 도입,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8404>.
- 40 리먼,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 대사관으로서의 지방회*, 377.
- 41 미국 의회, 1964년 민권법, H.R. 7152 (1964), <https://www.govtrack.us/congress/votes/88-1964/h182>. 하원에서는 민주당 153명, 공화당 136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91명, 공화당 3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46명, 공화당 27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21명, 공화당 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42 미국 의회, 하원, 퍼스트스텝법, H.R. 5682, 115차 의회, 2018년 5월 7일 하원에서 소개,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682>.
- 43 "형사 사법 팩트 시트", NAACP, 2019년 5월 13일 접속, <https://www.naacp.org/criminal-justice-fact-sheet/>.
- 44 "실업률-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FRED 경제 데이터, 2022년 10월 5일 접속,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S14000006>.
- 45 폴 데이비슨, "채용 보고서: 9월 흑인 10대 실업률 19.3%로 하락, 사상 최저치", USA 투데이, 2018년 10월 5일, 2019년 5월 13일 접속,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18/10/05/jobs-report-black-teen-unemployment-lowest-record/1536572002/>.
- 46 앤드류 T. 위커, "낙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 2018년 8월 28일, 2019년 5월 13일에 접속, <https://erlc.com/resource-library/articles/why-we-should-work-to-overturn-abortion-laws/>.
- 47 제프 스타인, "8명의 정치학자에게 정당 강령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폭스, 2016년 7월 12일, 2019년 5월 13일 접속, <https://www.vox.com/2016/7/12/12060358/political-science-of-platforms>.
- 48 "알버트 필러 | T4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남침례신학교, 2020년 4월 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E5TxKP7uiGo>. 2020년 대선에 대한 필러의 발언은 41:00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인용된 인용문은 47:17부터 시작됩니다.

49 정치와 관련하여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도 같은 긴장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수십 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나라에서도 성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독교' 정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완벽하지 않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는 지혜와 기도,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자국민의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유에 감사하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정치 제도는 없지만, 정부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간행물에 설명된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파트너

주 가족 정책 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가족 연구 협의회가 하는 일, 즉 공론화를 형성하고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주 차원에서 수행합니다. 이 단체들은 생명, 가족,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다음 파트너와 함께 이 자료를 공동 게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AKFamily.org



FamilyCouncil.org



CaliforniaFamily.org



CTFamily.org



DE FAMILY
POLICY
COUNCIL

DelawareFamilies.org



FLFamily.org



HawaiiFamilyForum.org

The
FAMILY 
FOUNDATION

KentuckyFamily.org



LAFamilyForum.org



CCLMaine.org



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

MAFamily.org



MINNESOTA
FAMILY COUNCIL

MFC.org



NEBRASKA
FAMILY ALLIANCE
Advancing Family, Freedom, and Life

NebraskaFamilyAlliance.org



Cornerstone

NHCornerstone.org



New York
Families

NEW YORKER'S FAMILY RESEARCH FOUNDATION

NewYorkFamilies.org



NC FAMILY
POLICY COUNCIL

NCFamily.org

Center FOR
Christian
Virtue



Public Policy. Engagement. Education.

CCV.org



Protect the Family. Preserve the Future.



Family Policy Institute
OF WASHINGTON



PAFamily.org

FamilyHeritageAlliance.org

TXValues.org

FamilyFoundation.org

FPIW.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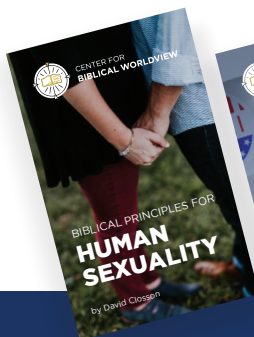
WIFamilyCouncil.org

어떻게 보십니까?



FRC의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화적, 정치적 질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리소스와 더 많은 정보를 frc.org/worldview에서 확인하십시오.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FRC 선물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성경적 렌즈를 통한 문화 참여

성경적 세계관 센터는 성경적 세계관을 성장시키고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 가족,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가족, 지역 사회, 공공의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frc.org/worldview를 방문하십시오.

최신 CBW 동영상, 기사, 간행물 및 인터뷰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당신의 믿음이 부서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

오늘날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센터에서 서밋 미니스트리와 협력하여 제작한 6주 분량의
동영상 시리즈인,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를
소개합니다. 이 무료 세계관 성경 공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풍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매일 보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피처링



토니 퍼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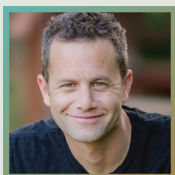
제프 마이어스



리 스트로벨



알리사 차일더스



커크 카메론



션 맥도웰

*frc.org/worldview*를 방문하여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동영상 시리즈를 접속하십시오.



SUMMIT
MINISTRIES

성경은 정치 참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청지기로서의 열망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성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과 가장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고, 목회자가 교인들과 함께 민감한 도덕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frc.org